타이거 우즈, '벤 호건 재기상' 수상

지난해 화려하게 부활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재기의 상징인 '벤 호건 재기상' 을 수상했다. 23일 'KBS' 에 따르면 미국골프기자협회는 이날 부상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벤 호건 재기상' 수상자로 타이거 우즈를 선정했다.

허리와 무릎을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타이거 우즈는 2017년 걷기조차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더는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보란 듯이 투어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며 5년 1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미국 프로골프(PGA)투어 통산 80승을 달성한 우즈는 지난해 18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번, 준우승 2번, 톱10 7번을 기록하며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2017년 말 656위인 세계 랭킹을 무려 13위로 끌어올리며 골프 황제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벤 호건(미국)은 미국 프로골프(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 9승을 포함해 64승을 올린 전설적인 선수로 36살 때 자동차 사고로 골반과 갈비뼈 등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재기에 성공했다. 부상을 당하고 1년 뒤인 1950년 US오픈에서 우승, 이듬해 마스터스 첫 우승과 US오픈 세 번째 우승을 일궜고 1953년에는 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등 3대 메이저대회를 석권했다.

타이거 우즈는 "벤 호건의 이름을 딴 이 상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 이라며, "다시 아이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만도 다행인데 골프 선수로서 필드에 설 수 있다는 건 큰 행운" 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제임스의 부상으로 스포츠 도박시장 혼란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사진)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합법화된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제임스는 지난해 12월 25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사타구니를 다쳤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임스의 부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는 몇 경기만 결장하고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제임스의 결장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이어지고 있다. 레이커스는 이 기간 제임스를 일일 부상자명단에 올리고 있다. 데뷔 후 이렇다 할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 제임스이기에 회복이 이토록 더딜지 구단 또한 계산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레이커스가 제임스 부상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임스의 에이전트는 얼마 전 "크리스마스 다음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는데, 3~6주 진단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레이커스는 이 사실을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 합법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이후, 뉴저지주에서만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포츠 도박 시장에 12억 달러나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액이 오가는 시장에서 미국프로농구(NBA) 최고 스타인 제임스의 부상은 판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레이커스의 행동을 저지할 만한 규정이 NBA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NBA 규정은 선수 부상의 정도를 경기 전날 오후 5시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 부상의 자세한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 는 없다. 1주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미국프로풋볼(NFL)의 경우, 부상자의 상태를 매일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제임스의 부상은) 당분간 떠오르는 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일은 NBA를 바꾸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추신수, 류현진에게 쏠린 미국 언론의 관심

텍사스 레인저스 소식을 다루는 론 스타 볼이 22일 추신수 관련 투표를 진행했다. 매체는 2019 ZiPS 프로젝션의 추신수 올 시즌 예상 성적을 이야기하며 이보다 추신수가 더 나을지, 아닐지 투표를 열었다.

24일 '소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ZiPS 프로젝션은 컴퓨터 통계로 선수의 다음 시즌 성적을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ZiPS가 예상한 지명타자 추신수 2019년 성적은 타율 0.250 출루율 0.355 장타율 0.409 OPS 0.764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 1.1이다. 매체는 추신수 성적 기준을 OPS 0.764로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가한 200여 명의 팬들 가운데 약 65%가 추신수 OPS가 0.764를 넘는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나머지는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신수가 OPS 0.764보다 부진했던 경우는 300타수를 기준으로 2011년, 2014년뿐이다. 해당 시즌 모두 추신수가 부상으로 고전했을 때다. 추신수 통산 성적이 OPS 0.826인 점을 고려하면 0.764는 매우 부진한 성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추신수는 ZiPS 예상 성적을 보란 듯이 비웃었다. ZiPS는 타율 0.256 출루율 0.353 OPS 0.768 17홈런 58타점을 예상했지만 추신수는 지난해 타율 0.264 출루율 0.377 OPS 0.710 21홈런 62타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전반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쳐 올스타까지 뽑혔다. 후반기 다소 부진했지만, 모든 지표에서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한편 메이저리그 전문 매체 'MLB.com' 은 23일 '지금 당장 시즌이 시작했을 때' 라는 전제 아래 30개 구단의 선발 로테이션을 예상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워커 뷸러, 류현진, 리치 힐, 마에다 켄타의 순서로 로테이션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현진을 3선발로 예상한 가운데 유망주 훌리오 우리아스와 지난 시즌 기복이 있었던 로스 스트리플링은 제외됐고 마에다 켄타가 합류했다.

이 매체는 커쇼와 뷸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이를 '환상적인 딜레마' 라고 표현했다. 뷸러는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4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3.80으로 호투하며 에이스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